

Energy Bites

글로벌 정제설비 업데이트: 연말 정제마진 강세 전망 유지

정제설비 순증설 업데이트

2025년 감소, 2026년 증가

4년 만에 정제설비 용량이 감소하는 25년: 2025년 글로벌 정제설비 생산능력이 21년 이후 처음으로 18.8만 b/d가 감소할 전망이다(BNEF). 설비 폐쇄량이 110만 b/d(+55% YoY)로 증설량 91만 b/d(-51% YoY)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26년에는 약 71만 b/d의 생산능력이 증가할 전망이며, 증설량은 85만 b/d, 폐쇄량은 15만 b/d 수준이 예정되어 있다.

국가별 업데이트

12월부터 시작되는 인도 증설

인도가 이끄는 26년 증설: 인도의 25-26년 총 정제설비 증설량은 65만 b/d(글로벌 증설의 37%)로 가장 많은 증설을 계획 중인 국가다. 주목할 점은 가장 작은 공장인 IOCL Digboi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프로젝트가 석유화학 통합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강한 내수 플라스틱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화학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단고테(나이지리아), 휘발유 생산차질 지속: 단고테 정유소의 2분기 가동률은 70% 수준이며, RFCC의 생산 차질로 휘발유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휘발유를 생산하는 RFCC는 이미 4월과 6월에 기술 문제가 두차례 발생했고, 현재는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가동 중단 상태다.

울롱(중국), 가동률 83%: 총 2개의 20만 b/d CDU로 이뤄진 울롱 정제소는 2024년 9월 가동을 시작해 83%의 가동률(7월 초)을 기록하고 있다. 울롱 프로젝트는 화학제품 생산이 주요 목적이기에, 현재는 석유제품들을 생산 중이지만 점차 석유제품 설계 수출인 12.5%에 수렴할 전망이다.

애널리스트 코멘트

연말 정제마진 강세 전망 유지

하반기까지 부족한 정제설비 지속: 연말까지 정제마진 강세 지속 전망을 유지한다. 12월에 인도 프로젝트 확장 증설이 있으나, 램프업 기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고테의 RFCC 가동 차질 이슈, 울롱의 석유제품 수출 감소, 러시아의 정제설비 드론 공격 피해까지 감안하면 석유제품의 수급은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유설비들의 증설이 석유화학 공장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케이스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제품 생산량은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지역별 CDU 증설 및 폐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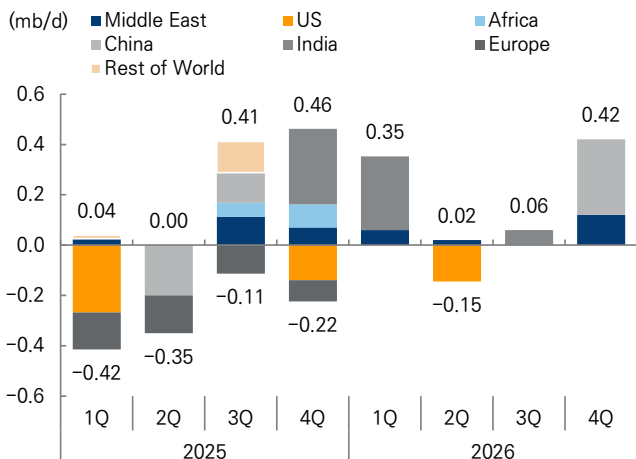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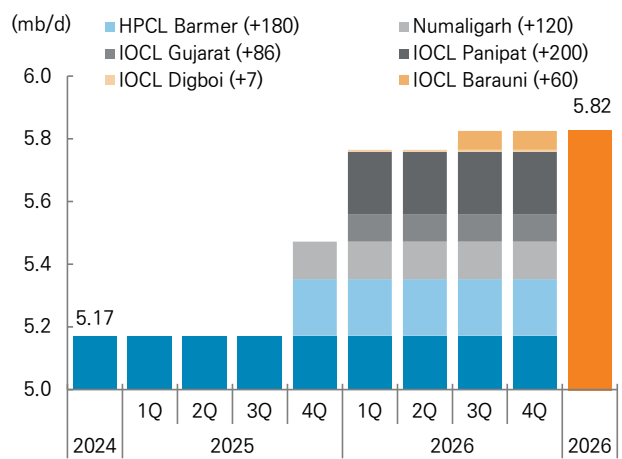


그림 2. 인도 정제설비 생산능력 추이(2024-26)



자료: BloombergNE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NE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